

7월 네번째 주 그룹큐티나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백성



이사야 6:1-13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날 대속하신 예수께(찬송 321장, 구 351장)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괴사한 신체 부위를 방치하면 패혈증 같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환자는 신체의 일부를 잃어야 하는 고통에 절망하지만, 의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단호히 수술용 칼을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미 부패해 버린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썩은 살을 베어 내는 일은 몸서리쳐질 만큼 참혹한 고통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만이 죽어 가는 이스라엘을 살려 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였습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이사야는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1-7절).

1) 스랍들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찬양합니까?(2-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한다.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스랍’(사라프)은 매우 독특한 존재다. 구약에서 총 7회 사용된 이 단어는 이사야 6장(2회)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에서 모두 ‘불뿔’으로 번역된다. 이러한 언어적 용례를 통해 스랍이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부드러운 천사가 아니라, 심판의 고통과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시키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주를 이루는 이사야서 전반부(1~39장)의 문맥을 고려할 때, 불타는 존재인 스랍은 심판주의 위엄을 보좌하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외치는 ‘거룩’(카도쉬)은 본래 ‘구별됨’을 의미한다. 즉, 스랍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의 빛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시는 불타는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다.

2) 이사야의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기 위해 스랍은 어떤 일을 합니까?(6-7절)

부절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

본문의 장면은 언뜻 입술을 불로 지지는 고통스러운 형벌처럼 보이지만, 환상 속에 담긴 심오한 상징에 주목해야 한다. 성전 제단 아래의 숯은 단순한 제사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신성한 매개체다. 율법에 따라 오직 제단의 불만을 성소에 사용해야 했다. 스랍이 이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행위는 제물의 피를 흘리는 전통적 제사와는 또 다른 형태의 ‘직접적인 속죄’다. 죄 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죄를 태워 없애는 과정에는 반드시 뼈아픈 고통이 동반된다.

나눔 1 이사야가 겪은 숯불의 고통은 장차 이스라엘이 심판을 통해 정화될 것을 예표합니다. 내 삶에서 죄와 교만을 태워 없애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화의 시간’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고통스러웠던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떻게 정결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졌는지 나눠 봅시다.

2.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릴 사자로 이사야가 자원합니다(8-13절).

1)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지 고민하실 때 이사야는 어떤 말로 자원합니까?(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 보낼 책임자를 찾으시자, 이사야는 주저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헌신의 순간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명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 결단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회복이 아니라 심판이었으며, 백성의 마음을 더욱 둔하게 만들어 멸망을 확정 짓는 ‘실패가 예정된 길’이 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사야의 자원은 자기 민족의 파국을 정면으로 목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끝까지 대언해야 했다. 사명의 참담한 무게를 미리 알았더라도 이토록 신속히 손을 들 수 있었을지 자문하게 될 만큼, 그의 순종은 인간적 고뇌를 압도한다.

2)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기신 임무는 무엇입니까? (10절)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는 것이다.

이는 선지자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당혹스러운 명령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용서나 회복을 선불리 선포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 깊이 통감했을 것이다. 자신이 숯불로 입을 지저서 죄가 용서되었던 것처럼, 심판에는 적당한 타협이나 쉬운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백성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라는 이 역설적인 임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필연적인지를 강력하게 시사한다.

3) 이사야는 이 사역을 언제까지 수행해야 합니까?(11-12절)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 엄중한 선포는 과거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할 만큼 단호하고 철저하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한 극한의 상실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깊고 무거웠는지를 보여 준다. 만일 이 무서운 심판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모든 것이 베임을 당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남겨 두신 마지막 희망은 무엇입니까?(13절)

그루터기, 곧 거룩한 씨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철저한 파괴를 예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시선은 ‘파멸’이 아닌 ‘재건’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어 내신 이유는 단순히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씨’만이 자랄 수 있는 정결한 토양을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나눔 2 이사야는 전해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끊임없이 심판을 외쳐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낙심했던 영역이 있습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나눔 3 하나님은 다 태워 버리는 불같은 심판 중에도 다시 시작할 ‘그루터기’를 남겨 두십니다. 관계, 상황, 내면 등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황폐해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주님이 남겨 두신 ‘작은 그루터기’(희망의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찾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 삶의 모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하게 하소서.

공동체 -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남기신 거룩한 그루터기로 온전히 서게 하소서.